

원 저

대한약침학회지에 게재된 약침관련논문의 유형 분석

이종영* · 한영주* · 김진호* · 김영진* · 권기록*

*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Type analysis of Pharmacopuncture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Pharmacopuncture

Jong-young Lee* · Young-joo Han* · Jin-ho Kim* · m* · Ki-rok Kwon*

*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focus of the analysis was laid on changes in research pertaining to pharmacopuncture in regards to time progression.

Methods : Type analysis was done on pharmacopuncture related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Pharmacopuncture from the inaugural issue to June 2006 issue. 196 papers are analyzed to the sort of type.

Results : For type analysis of the type of studies, experiment papers outnumbered other types with 94 cases, followed by 67 for clinical trials, and 35 for literary studies.

Type analysis on the type of illnesses listed in the Methods section, 31 papers concentrated on arthritis or HIVD of spine, 6 for Pharmacopuncture response in human, 5 for anti-cancer and immune disorders, etc.

Conclusion : Since its inaugural issue in 1997 to August 2006 issue ranging 10 years, type analysi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journals pertaining to pharmacopuncture has risen steadily over the years and nearly half of papers published recently are dealing with pharmacopuncture.

Pharmacopuncture is a treatment method based on the unique theory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Its superior efficacy is proven through numerous research works, and effort and academical approach on pharmacopuncture are expected to receive positive evaluation.

Key words : Herbal acupunctur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Pharmacopuncture, Pharmacopuncture

1. 서 론

하나의 치료법이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 매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의학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많은 치료법들이 시도되었고, 또한 사라졌을 것이다.

한의학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한 20세기를 지나면서 서양과학의 영향으로 이침, 전침, 레이저 침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며, 또한 현재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임상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침구학에서 관찰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약침과 관련된 연구일 것이다. 약침요법은 그동안의 침구요법이 질병의 치료나 예

※ 교신저자 : 권기록,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83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침구과
(Tel : 033-741-9258 E-mail: beevenom@paran.com)

방을 목적으로 일정한 경혈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던 치료형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약재의 화학적인 자극을 경혈에 추가한 독특한 한국 한의학의 치료행위이다.

특정 부위에 특정 한약재를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한다는 약침의 기본 원리는 1960년대 남상천 선생의 <經絡>을 통하여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많은 신의료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과정이지만 의구심과 비판 등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부터 약침요법에 대한 한국 한의학계의 다양한 학문적 연구 검토가 진행되었고, 수많은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에는 한국 침구학의 대표적 의료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1년에 설립된 대한약침학회는 1997년부터 대한약침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한의학에서 체계적인 약침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대한약침학회는 9년간 총 20권의 대한약침학회지(2006년 8월 기준)를 발간하였으며 수록된 논문도 265편에 달한다.

이에 저자들은 그동안 약침학회지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들 중 약침관련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시도되었던 약침관련 연구의 현황을 정리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한 결과 유의한 결론을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II. 방 법

1. 연구대상

대한약침학회에서 1997년 창간호부터 2006년 6월까지 발행한(9-2호) 20권의 대한약침학회지에 수재된 논문 중 약침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약침학회지 20권을 가지고 총 265편의 논문 중 약침관련 논문 196편을 정리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에서 검색된 논문을 발간 연대와 주제별로 세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주제별 분류는 문헌논문·보고논문, 실험논문, 임상논문 등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문헌논문은 내용이 문헌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고찰을 하였거나 어떤 질환에 대하여 여러 문헌에 나타난 바를 개괄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한 논문을, 보고논문

은 문헌을 고찰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생각을 밝히거나, 약침의 제조방법, 안정성 등을 고찰하여 보고한 논문을, 실험논문은 인간 이외의 동물이나 세포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실 내에서의 연구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발표한 논문으로 규정하여 분류하였고, 임상논문은 인간을 상대로 실험적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나 어느 질환의 치료경과를 발표한 case report를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이 중 실험논문은 주제에 따라 관절염, 항암(면역, 항산화 포함), 혈관성, 통증이나 염증관련, 비노기질환, 간·담도계·독성, 신경계(뇌조직 포함), 당뇨, 비만,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고, 임상논문은 척추질환을 포함하근·골격계 질환과 기타 연구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III. 결 과

1. 연도별 약침 연구논문의 게재편수

1997년 창간호부터 꾸준히 약침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Fig. 1).

그동안 약침학회지에 수록된 총 265편의 논문 중 약침관련 논문이 196편으로 전체의 약 73.9%를 차지하고 있었다(Fig. 2).

2. 논문의 유형별 분류

논문의 유형별 분류는 문헌·보고논문, 실험논문, 임상논문 등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196편의 논문 중 문헌·보고논문이 35편으로 18%를 차지하였고, 실험논문이 94편으로 전체의 48%, 그리고 임상논문이 67편으로 34%를 나타내었다(Fig.3).

약침과 관련된 문헌·보고논문은 총 35편이었고, 이 중 약침으로 쓰이는 약재에 대한 문헌 고찰논문이 13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 종류는 봉독, 산삼, 우황, 사향, 상황버섯, 영사, 사독, 옷, 비소, 전갈, 섬수, 초오, 오공 등이었다. 이 외에 약침에 대한 전반적 고찰이나 안전성, 제조 기법에 관한 논문이 8편이었고, 약침으로 쓰이는 needle에 대한 논문도 있었다.

실험논문은 주제에 따라 관절염, 항암(면역, 항산화 포함), 혈관성, 통증이나 염증관련, 비노기질환, 간·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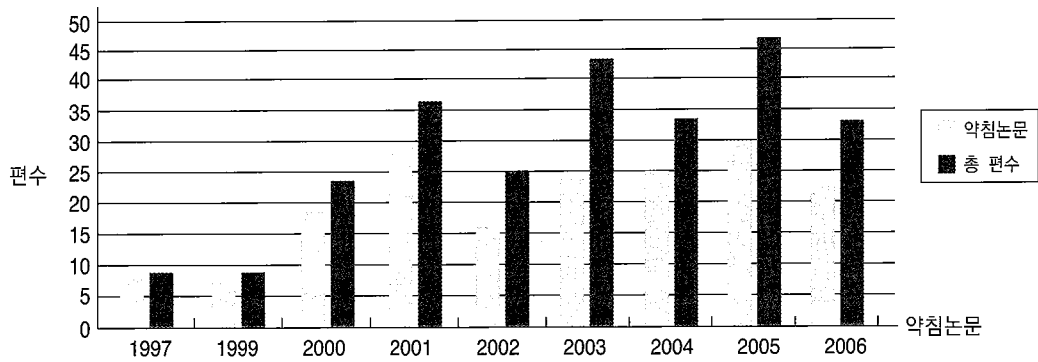


Fig. 1 Pharmacopuncture related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Herbal Acupuncture from the 1997 to June 2006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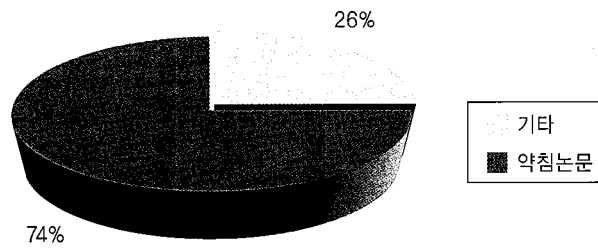


Fig. 2 The number of journals associated with pharmacopuncture is 196 papers out of 265 in the total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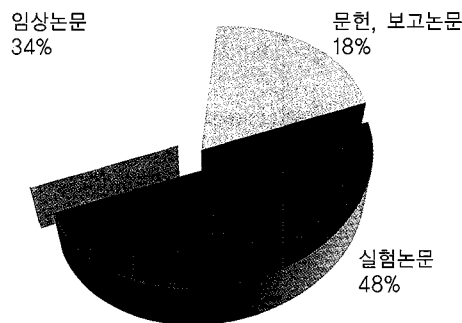


Fig. 3 The classification of papers associated with pharmacopuncture. Experiment papers outnumbered other types with 94 cases, followed by 67 for clinical trials, and 35 for literary studies.

계·독성, 신경계, 비만, 당뇨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 논문에서 하나가 아닌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어 분류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기한 영역과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94편의 실험 논문 중 간, 담도, 독성평가 관련 논문이 26편으로

약 29%를 차지하고 있었고, 항암, 면역, 항산화 관련 논문이 21편으로 22%를, 관절염, 골관련 논문이 9편으로 약 10%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혈압이나 혈액 관련 모델 논문과 신경계, 뇌조직 관련 논문이 각각 6편으로 약 6%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는 진

통·소염·항균과 관련된 논문이 5편으로 5%, 비뇨생식기, 자궁 모델이 3편, 비만 논문, 당뇨 논문이 각각 2편이었고 매우 광범위한 모델에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4).

임상논문은 척추질환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과 중풍, 구안와사 등의 신경계 질환, 항암 관련 연구, 침감 지표, 체표온도등의 신체반응 연구, 부작용과 관련된 보고, 기타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나 관절염, 염좌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67편 중 31편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었고, 임상적으로도 약침요법이 근골격계 질환에 특히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침감지료, 체표온도 등의 신체반응을 연구한 논문이 6편, 항암관련 임상논문이 5편이었고 중풍이나 구

안와사 등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이 4편이 보고되고 있었고, 수족장애에 관한 논문 2편, 약침의 부작용에 관한 논문 1편, 기타 18편의 논문 중 폐렴, 통증, 빈혈, 두통, 하지부종, 원형탈모증, 염증, allergy, 하지부 냉증, 천식, 수면, 월경통 등과 같이 다양한 논문이 각각 1편씩 보고되고 있었다(Fig. 5).

3. 약침의 종류별 연구내용 분석

종류에 따른 약침의 분류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형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남상천 선생의 <경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락 약침 중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응답, 우황, 사향 관련 기제와 호도, 홍화, 녹용 등의 운제 약침을 경락 약침으로, 김정언 선생이 <기적의 약침요법> 등에서 제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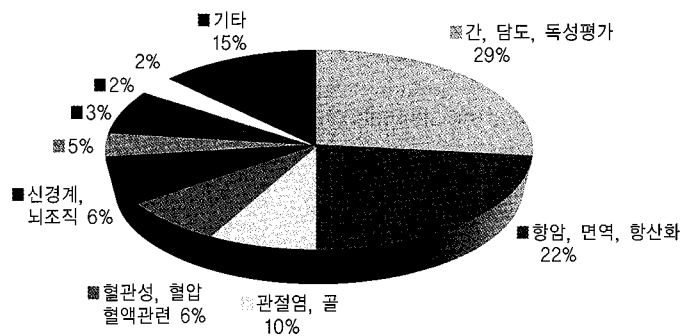


Fig. 4 Type analysis on the type of illnesses listed in experiment papers, 26 for liver related toxicity , 21 papers concentrated on anti-cancer • immune disorders • anti-oxidation, 9 for arthritis. and a lot of studies related blood pressure, thrombus, and other disorders were follo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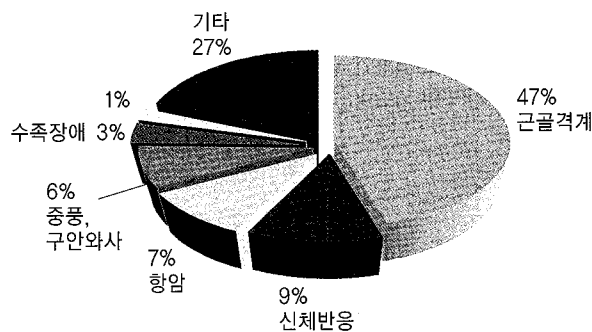


Fig. 5 Type analysis of papers associated with pharmacopuncture in clinical trials, musculo-skeletal disorders comprised 31 out of 67 papers, followed by the effect on body, anti-cancer.

있는 증류약침의 형태를 팔강약침으로 분류하였고, 벌의 독을 치료에 이용하는 봉약침, 태반 가수분해 추출물인 자하거 약침, 단일 한약을 약침제제로 만든 단미약침, 현재 임상에 경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합 처방을 이용한 복합 약침, 또한 논문상 약침의 종류를 밝히지 않고 전반적인 약침에 대한 문헌고찰, 실험, 임상 등을 진행한 논문들은 그냥 약침이라고 분류하였고, 상기의 분류에 포함하기 애매한 양약제제나 cobra 독 등은 기타에 포함하였다.

이 분류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약침을 동시에 연구한 논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기가 어려웠으나 상기한 기준을 최대한 적용하고자 노력하였고, 두 종류 이상이 복합된 경우는 동시에 포함하여 분류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1) 약침의 종류에 따른 논문 게재 현황

약침의 종류에 따른 분류 작업을 시행한 결과 봉약침과 관련된 연구가 50편으로 27%를 차지하였고, 단일 한약을 약침으로 만들어 연구한 논문이 41편, 약침에 관한 전반적인 논문이 30편, 경락약침이 25편, 복합 약침이 12편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하거 약침이 11편, 팔강약침이 8편, Cobra 독이나 복어독, Hirudin, 노랑머리왕지네 등의 기타 약침이 4편 게재되고 있었다(Fig. 6).

2) 봉약침의 연구 유형 분석

봉약침 관련 논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문헌 논문이 4편, 실험 논문이 22편, 임상 논문이 24편으로 총 50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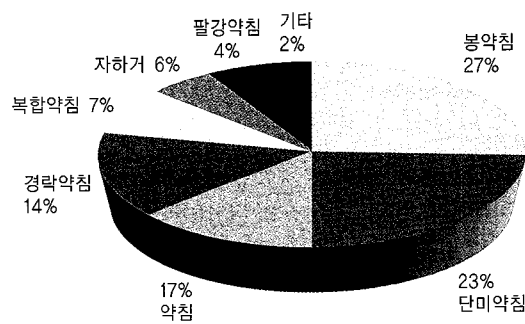


Fig. 6 For type analysis of the pharmacopuncture extracts. Many kinds of herbs were made to pharmacopuncture and used for experimental studies. Bee venom was most popular issue with 50 pap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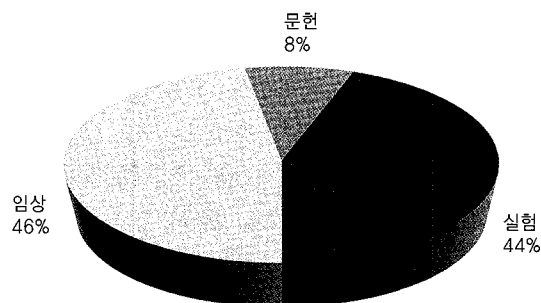


Fig. 7 bee venom related papers were most numerous with 50 cases. And it was consist of 4 literary studies, 22 experiment papers and 24 clinical trials.

이는 단일 약침으로는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것이고, 특히 임상논문의 게재 비중은 약침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임상 논문의 35.8%를 차지하여 봉약침과 관련된 임상적 연구가 약침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단미 약침의 유형 분석

단미 한약제에 대한 종류별 약침 분류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16종의 단미 한약이 약침으로 만들어져 연구에 사용되었다. 그 중 오공 약침 관련 논문이 12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자연산, 산양산삼 약침이 각각 8편, 인삼·홍삼 약침이 5편, 그리고 황금 약침이 4편, 맥문동약침이 2편, 기타 우슬, 포공영, 차전자, 치자, 도라지, 파두, 행인, 도인, 적소두 등이 1편씩 게재되었다.

4) 경락 약침의 연구유형 분석

경락약침과 관련된 논문은 총 25편으로 이 중 문헌 논문이 3편, 실험논문이 18편, 임상논문이 5편 발표되었다.

약침의 종류에 따라 연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홍화자 약침이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응담·우황·사향 등의 기체 약침이 9편, 호도 약침이 3편, 그리고 녹용 약침이 3편을 나타내었다.

IV. 고 찰

약침요법은 질병의 치료에 유관한 혈위나 압통점 등에 기미론을 따른 정제된 한약제재를 주입하여 자침과 약물의 효과를 동시에 구현한 신침요법으로¹⁾, 국내에서는 1960년대 남상천 선생의 <경락>이라는 책에²⁾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약침요법은 이전의 침구요법이 질병 치료에 유효한 경혈 등 체표에 침이나 뜸 등의 물리적인 자극을 가한 데 비해 한약제의 화학적인 자극을 결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독특한 치료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도 현재의 신경차단술과 유사한 '孔穴封閉'와 같은 방법이 유사한 시기에 개발되었고³⁾, 중·서의 결합이라는 학문적 방향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약침제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약침요법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한국 한의학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로 1970년대 말부터 한의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약침요법은 배우기가 쉽고 사용이 간편하며 치료효과가 빠른 등의 장점으로 인해 현재 한의사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한방 의료행위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⁴⁾.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계의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그러한 연구가 학계에 보고되어야 한다.

국내의 학회 중 약침의 연구와 관련된 학회는 대한약침학회와 대한침구학회가 대표적이고, 또한 가장 왕성한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대한약침학회는 1991년에 설립되어 1997년부터 대한약침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하며 한국 한의학에서 체계적인 약침발전에 이바지하기 시작했다. 그 후 9년간 총 20권의 약침학회지(2006년 8월 기준)를 발간하였으며 수록된 논문도 300편에 달한다.

이에 저자들은 그동안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약침 관련 논문의 경향과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약침 연구의 올바른 방향을 탐색하고자 대한약침학회지에 게재된 약침관련논문의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대한약침학회지에서 약침과 관련된 모든 논문을 모아 이상에서 검색된 논문을 발간 연대와 주제별로 세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 결과 약침학회지에 수록된 총 265편의 논문 중 약침관련 논문이 196편으로 전체의 약 73.9%를 차지하고 있었다.

약침관련 논문의 유형 분석에서는 문헌 연구가 35편, 실험논문이 94편, 그리고 임상논문이 67편 보고되었는데, 실험논문의 비중이 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약침과 관련된 문헌·보고논문은 총 35편이었고, 이중 약침으로 쓰이는 약제에 대한 문헌 고찰논문이 13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약침에 대한 전반적 고찰이나 안전성, 제조 기법에 관한 논문이 8편이었다.

실험논문은 주제에 따라 관절염, 향암(면역, 항산화 포함), 혈관성, 통증이나 염증관련, 비뇨기질환, 간·담도계·독성, 신경계, 비만, 당뇨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총 94편의 실험 논문 중 간, 담도, 독성평가 관련 논문이 26편으로 약 29%를 차지하고 있었고, 향암, 면역, 항산화 관련 논문이 21편으로 26%를, 관절

염, 골관절 관련 논문이 9편으로 약 10%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혈압이나 혈액 관련 모델 논문과 신경계, 뇌조직 관련 논문이 각각 6편으로 약 6%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도 진통·소염·항균과 관련된 논문, 비뇨생식기, 자궁 모델, 비만 논문, 당뇨 논문 등의 매우 광범위한 모델에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논문은 척추질환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과 중풍, 구안와사 등의 신경계 질환, 항암 관련 연구, 침감 지표, 체표온도 등의 신체반응 연구, 부작용과 관련된 보고, 기타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나 관절염, 염좌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67편 중 31편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었고, 임상적으로도 약침요법이 근골격계 질환에 특히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침감지표, 체표온도 등의 신체반응을 연구한 논문이 6편, 항암관련 임상논문이 5편이었고 중풍이나 구안와사 등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이 4편이 보고되는 등 다양한 논문이 보고되고 있었다.

약침의 종류에 따른 분류 작업을 시행한 결과 봉약침과 관련된 연구가 50편으로 27%를 차지하였고, 단일 한약을 약침으로 만들어 연구한 논문이 41편, 약침에 관한 전반적인 논문이 30편, 경락약침이 25편, 복합 약침이 12편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하거 약침이 11편, 팔강약침이 8편, Cobra 독이나 복어독, Hirudin, 노랑머리왕지네 등의 기타 약침이 4편 게재되고 있었다.

봉약침 관련 논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문헌 논문이 4편, 실험 논문이 22편, 임상 논문이 24편으로 총 50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약침으로는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것이고, 특히 임상논문의 게재 비중은 약침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임상 논문의 35.8%를 차지하여 봉약침과 관련된 임상적 연구가 약침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미 한약재에 대한 종류별 약침 분류를 시행한 결과, 16종의 단미 한약이 약침으로 만들어져 연구에 사용되었다. 그 중 오공 약침 관련 논문이 12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자연산, 산양산삼 약침이 각각 8편, 인삼·홍삼 약침이 5편, 그리고 황금 약침이 4편, 맥문동 약침이 2편, 기타 우슬, 포공영, 차전자, 치자, 도라지, 파두, 행인, 도인, 적소두 등이 1편씩 게재되었다.

경락약침과 관련된 논문은 총 25편으로 이 중 문헌

논문이 3편, 실험논문이 18편, 임상논문이 5편 발표되었다. 약침의 종류에 따라 연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홍화자 약침이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응담·우황·사향 등의 기제 약침이 9편, 호도 약침이 3편, 그리고 녹용 약침이 3편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약침에 대한 영문법 표기도 *Acua-acupuncture*, *Herbal acupuncture*, 그리고 *Pharmacopuncture* 등이 사용되고 있었고, 봉약침의 경우 봉독, 봉독약침, 봉침독 등 다양한 표기가 사용되고 있었다. 언어가 시대적 사회성을 띄고 있으므로 그 시대의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표현이 변할 수 있지만 *workshop* 등을 통하여 한의학계 구성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용어의 표준화 작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침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개인의 관심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나 한의학이 임상의학임을 전제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임상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하나의 약침이 만들어져서 환자에게 적용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많은 과정들, 예를 들면 약침의 문헌적 선행연구와 조제과정의 규격화, 독성시험, 안정성(*stability*) 및 안전성(*safety*) 시험, 치료기전 연구와 치료 효능에 대한 임상적 연구 등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의 약침이 임상에서 정착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많은 주제는 오히려 학문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약침에서 이러한 연구의 흐름이 충족되고 많은 연구결과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며, 하나의 연구 결과가 다음의 연구로 이어지거나 혹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의학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로는 동일한 약재를 사용하여 동일한 실험 방법을 진행한 중복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현성의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연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마도 사전의 기획 단계에서 이전의 논문 검색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거나 우연히 동일한 주제로 연구 수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에는 Internet 등을 검색과정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대한약침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약침 관련 논문의 유형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연구와 이를 통한 한의학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V. 결 론

1997년 창간호부터 2006년 6월호까지 대한약침학회지에 게재된 약침관련 논문의 유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논문의 유형은 196편 중 실험논문이 94편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논문이 67편, 문헌논문이 35편 게재되고 있었다.
2. 실험논문의 주제별 분석에서는 간, 담도, 독성평가 관련 논문이 26편으로 약 29%를 차지하고 있었고, 항암, 면역, 항산화 관련 논문이 21편으로 26%를, 관절염, 골관련 논문이 9편으로 약 10%를 차지하였

으며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3. 임상논문은 추간관 탈출증이나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67편 중 31편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었고, 침감지료, 체표온도 등의 신체 반응을 연구한 논문이 6편, 항암관련 임상논문이 5편이었고 중풍이나 구안와사 등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이 4편이 보고되고 있었다.
4. 약침의 종류에 따른 분류 작업을 시행한 결과 봉약침과 관련된 연구가 50편으로 27%를 차지하였고, 단일 한약을 약침으로 만들어 연구한 논문이 41편, 약침에 관한 전반적인 논문이 30편, 경락약침이 25편, 복합 약침이 12편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하거 약침이 11편, 팔강약침이 8편, Cobra 독이나 복어독, Hirudin, 노랑머리왕지네 등의 기타 약침이 4편 게재되고 있었다.

參考文獻

1. 대한약침학회. 약침요법 시술 지침서, 대한약침학회, 1999; 13.
2. 남상천. 경락 I, 신일문화사, 1967; 7-31.
3. 손인철, 이문호. 약침요법, 일중사, 1999; 7.